

## 국어화자의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 파악에 대한 고찰 - ‘직·간접류’의 형성과 관련하여 -

안 소 진

본고에서는 국어화자가 2음절로 된 한자어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직·간접류’라 명명한 특정한 한자어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소 인식 방식을 고찰한 결과, 화자가 한문 문법이나 구조적으로 분석되는 한자 형태소를 바탕으로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들의 관계에 기반하여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파악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본래 한자의 자형(字形), 자의(字意)는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은 주로 고유어를 자료로 하여 진행되었던 형태론 이론 논의가 한자어 자료를 포괄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어휘: 2음절 한자어, 한자어 구성요소, 의미 관계, 인식, 어휘부

### 1. 서론

국어의 2음절 한자어(이하 2자어)<sup>1)</sup>는 그 수가 많고 3음절 이상의 한자어도 대개 2음절 한자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까닭에 관련 연구가 드물지 않다. 연구의 다수는 2자어의 한문 문법적 구조, 의미 구조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분석·분류 중심의 논의는 한자어와 관련된 경향성을 드러내주어 국어 형태론 지식의 폭을 넓힌다. 그러나 형태론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단어의 이해와 저장,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틀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국어 형태론 연구에

---

1) 이 논문에서는 ‘2음절 한자어’를 김창섭(1999)의 ‘2자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김창섭(1999)에서는 2자어를 구성요소가 자립적이지 않은 2음절 한자어로 한정하기 때문에 ‘창문(窓門), 신차(新車)’처럼 자립적인 요소가 포함된 한자어는 제외된다.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한자어를 자료로 하여 이론들을 지향하는 방법으로서 화자가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방식, 운용하는 방식을 구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하에서 2자어 구성요소가 한자형태소의 분포에 의해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석되는가와 별개로, 화자가 실제로 2자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2자어 구성요소 파악 방식을 고찰하고, 이를 어휘부 이론과 연결할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론들과의 관련은 가능성 제안의 수준이며, 논의의 중심은 2자어 구성요소 인식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고찰의 수단이 된다.

(1) 가. 직·간접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

직·간접세, 직·간접 폐해

나. 5분 자유발언이 개·폐회시마다 경남의 각종 정책들을 공론화하고 있다.

개·폐회 예배, 개·폐회 연설, 개·폐회 선언

다. 시내 131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340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영·유아 보육 사업, 영·유아 교육

라. 이번 연구에서는 초·재혼 남녀의 결혼조건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았다.

초·재혼 결혼정보회사

마. 경로식당 배·퇴식 봉사, 배·퇴식 동선의 확실한 분리

바. 계시판의 특성에 따라 익·실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직·간접’과 같이 한 음절을 공유하면서 두 단어로 분리될 수 있는 구성을 주된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자료를 고찰의 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직접’과 ‘간접’을 결합해 ‘직·간접’을 형성하는 방식이 2자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2자어의 인식 방식을 고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2음절 한자어 내부구조의 불투명성

국어에서 사용되는 2자어의 내부구조가 화자에게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2자어의 내부구조란 국어의 대부분의 2자어들이 따르는 한문식 문법을 말한다. (2)의 예는 김창섭(1999: 4)에서 국어의 2자어들이 한문의 통사론적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요소들의 배치가 국어의 어순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든 것이다.

- (2) 가. 수식 구성: 老人, 流水, 光線, 市內, 急行, 獨立, 過大  
 나. 병렬 구성: 土地, 人民, 往來, 敎育, 善惡, 優良, 明白  
 다. 접미 구성: 椅子, 菓子, 拍子, 街頭, 念頭, 斷乎, 確乎  
 라. 주어+술어 구성: 家貧, 日沒, 月出, 夜深, 年少, 海溢, 氣絕  
 마. 술어+목적어 구성: 讀書, 開會, 避難, 作文, 建國, 斷念, 牧畜  
 바. 술어+보어 구성: 入學, 登山, 歸家, 有名, 無數, 親韓, 對韓
- (3) 가. 동사: 宿泊, 宿食 / 合宿, 下宿, 野宿  
 나. 형용사: 宿德, 宿望, 宿命  
 다. 부사: 宿直  
 라. 명사: 投宿

접미 구성을 제외하면 국어의 2자어들은 본래 한문의 통사론적 구성인데, 그 어순이 고유어와 다르다는 것을 (2마) ‘술어+목적어 구성’과 (2바) ‘술어+보어 구성’에서 볼 수 있다. (3)의 예는 심재기(1987: 38)에서 한자가 다양한 통사적 기능을 가짐을 보이기 위해 든 것이다. 이때 ‘宿’이라는 요소가 보여주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로서의 통사적 기능은 한문의 구성요소일 때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2자어의 구조 내에서만 파악된다. 대부분의 국어화자에게 2자어는 내부구조가 불투명하다. 한자와 한문을 학습하여 한자어 내부 요소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어 문법을 운용하는 데에는 2자어의 내부 요소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은 김창섭(2001: 182)에서 한자어 내부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국어의 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든 것이다.

- (4) 가. 建國하다: 누가 {\*, ∅, 이 나라를} 건국하였는가?  
 나. 呼名하다: 내가 {∅, 너를/네 이름을} 호명하면 ...  
 다. 讀書하다: 나는 {∅, \*이 책을} 독서하고 있다.

‘건국하다, 호명하다, 독서하다’라는 동사가 참여한 위 문장은 목적어 요소를 도입했을 때 문법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건국하다’는 목적어를 도입해야 문법적이고 ‘독서하다’는 도입하지 않아야 문법적이다. ‘호명하다’는 도입한 경우 도입하지 않은 경우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논항구조 결정에 있어서의 불규칙성

은 한자어 내부의 의미상 목적어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목적어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의미상의 목적어가 국어의 통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불규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들 2자어 문법은 한국어 구어의 습득이나, 한글로 쓰인 단어의 분석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국어 화자가 한글로 표기된 ‘직접’이라는 한자어를 접했을 때 이 한자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한자와 한문을 따로 학습하지 않으면 이 한자어가 ‘直’과 ‘接’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개별 한자의 의미와 이 한자들이 ‘直接’이라는 단어 내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2자 한자어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어는 기존 단어의 내부구조를 참조하므로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유형의 단어는 조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2005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sup>2)</sup> 408개 단어 중에서 비자립적 한자들을 재료로 새로 생성된 2자 한자어는 아래 9개뿐이다.<sup>3)4)</sup>

- 2) 2005년을 택한 이유는 이 자료집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 중 가장 최근의 것이며, 이전 자료와는 달리 그 해의 신어와 사전 미등재어를 엄격히 구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05: i)

분류		항목 수(개)	비율(%)	순위
단일어	생성(生成)	42	10.3	3
	유추(類推)	13	3.2	6
	이의(異意)	3	0.7	9
	차용(借用)	11	2.7	7
복합어	합성	195	47.8	1
	파생	접두 파생	7	1.7
		접미 파생	91	22.3
약어	융합	28	6.9	4
	축약	1	0.2	10
	탈락	17	4.2	5
계		408	100	

- 3) 이와 관련된 신어 자료집의 기술은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검토를 요한다. 자료집에서는 단일어 중 차용이나 의미 확대 등에 의하지 않은, 순수하게 새로 생성된 단어가 가장 많고, 생성된 단어는 ‘빙면(冰麵), 속식(速食)’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자로 만든 말이 대부분(국립국어원 2005: xi)이라 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단일어 중 생성의 비율이 42개(10.3%)로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한자어라 기술하였으므로 생성된 2자 한자어의 비중이 상당히 커 보인다.

하지만 새로 생성된 한자계 단일어는 최대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도 13단어(검력(檢力), 검경언(檢警言), 권방(權放), 미자(未者), 범심(犯心), ‘복회하다(復會--)’의 복회(復會), 빙면(冰麵), 속식(速食), 정랭(政冷), 채어육(菜魚肉), 초흔(焦痕), 투괴(鬪魁), 혼검

## (5) 2005년 신어 자료집의 2자 한자어

검력(檢力), 범심(犯心), 복회하다(復會--), 빙면(氷麵)

속식(速食), 정랭(政冷), 초흔(焦痕), 투괴(鬪魁), 혼검(婚檢)

또한 이 9개 단어 중에서도 차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2005년에 2자어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단어가 있다. ‘정랭(政冷)’은 ‘정랭경열(政冷經熱)’의 준말로 중일 관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어 신조어이며 중국어에서 이미 90년대에 사용된 바 있다. 일본어에서도 중일 관계와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혼검(婚檢)’ 역시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자료집에서 ‘혼검’이 등장한 예문으로 제시된 부분이 중국의 혼검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sup>5)</sup>이었다는 점은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 새로 생성된 2자어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군긴다. ‘초흔(焦痕)’은 ‘불에 그을린 자국’이라는 뜻으로 고고학적 유물의 발견을 설명하는 기사문에서 발견된 단어인데, 유물의 설명에 사용된 다른 용례가 보인다는 점과 고고학 용어가 상당 부분 일본식 한자어라는 점(한영희 1985: 5)을 고려하면 이 단어 역시 차용어일 가능성이 크다.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단어는 7개(1.7%)뿐이고, 한국식 한자어라는 확인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 배경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신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어되는 2자 한자어가 적다는 사실은 2자 한자어의 내부 구조가 국어 화자에게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 3.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의 파악 방식

앞서 2자어의 내부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아래의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재고찰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 (6) 가. 직·간접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

(婚檢))를 넘지 못한다. 이 단어들 중 ‘검경언(檢警言, 검찰·경찰·언론), 채어육(菜魚肉)’은 3음절이고, ‘권방(權放, 권력·방송), 미자(未者, 미성년자의 은어)’는 자료집의 기준으로 약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넷을 제하면 2자 한자어는 총 9개가 된다.

4) 이하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안소진(2009: 46-47)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5) 혼검(婚檢)「명」[의] 결혼 전에 유전병이나 성병 유무를 알기 위하여 받는 건강 검진.

☞ 논란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가 지난 6월 혼검을 마친 예비부부에 한해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헤이룽장성 임신부 및 영아 보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촉발됐다. <스포츠한국 2005. 08. 11>

직·간접세, 직·간접 폐해

나. 급작스러운 가·감속은 절대 피해야 한다.

가·감속 처리, 가·감속 시간, 가·감속 패턴

다. 입·출국 신고서 작성 안내문, 입·출국 카드, 입·출국 금지

라. 5분 자유발언이 개·폐회시마다 경남의 각종 정책들을 공문화하고 있다.

개·폐회 예배, 개·폐회 연설, 개·폐회 선언

마. 시내 131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340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영·유아 보육 사업, 영·유아 교육

바. 현재 의원의 개·폐원이 거둬지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폐원 현황 분석

사. 시대변천에 따른 토지소유 공·사의 관계, 공·사의의 조화

아. 통·번역 상담 서비스, 통·번역 대학원

자. 이번 연구에서는 초·재혼 남녀의 결혼조건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았다.

초·재혼 결혼정보회사

차. 이 작품은 원화, 주제가 창의적이고 음·양각 표현 계획이 적절하다.

음·양각 청자, 음·양각 기법

밑줄 친 한자어 구성은 서로 밀접한 의미 관계에 있으면서 음성적으로 한 음절을 공유하는 두 2자 한자어로 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간접’은 ‘직접’과 ‘간접’ 두 단어로 분리될 수 있는데, 두 단어는 의미적 연상 관계에 있으면서 ‘접’이라는 요소를 공유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직·간접류’라고 부르기로 하자.<sup>6)</sup>

이러한 구성들은 한 단위로의 통합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7) 가. 개·작명, 판·구매, 배·퇴식, 익·실명, 창·폐간

나. 직·간접, 가·감속, 개·폐회, 영·유아, 초·재혼

다. 농어촌, 통폐합, 독과점, 임직원, 대소변, 선후배

6) ‘직·간접류’를 관찰 대상으로 삼은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서형국(2005, 2008)에서 ‘직간접, 남북한’ 등의 자료를 어근을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속 구성으로 파악한 바 있다. ‘직·간접류’는 적잖게 발견된다. 말뭉치 속에서 단발어를 추출, 관찰한 연구인 김일환(2009)에서 ‘직·간접류’가 수적으로 관찰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발어의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로 본고의 ‘직·간접류’에 해당하는 구성의 분석 문제를 들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구성이 단발명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43개에 이른다고 한다.(김일환 2009: 257). 김일환(2009)에서는 세종형 태의미분석말뭉치 가운데 한 번 출현한 일반명사 약 42,000개 중 10%의 표본을 검토하여 자료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그 중 43은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라 할 수 있다.

(7가, 나)는 발화시 첫 음절 뒤에 약간의 휴지가 존재하며 표기시에도 이 위치에 쉼표, 가운뎃점, 대각선 등의 표시(직, 간접, 직·간접, 직/간접)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화자가 아래 그림이 보이는 대응 관계를 상당히 명확히 인식하고, 구성을 쉽게 둘로 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8)
- |  |  |  |  |
|--|--|--|--|
|  |  |  |  |
|--|--|--|--|

특히 (7가)는 구성 단독으로는 의미 파악이 쉽지 않고, 아래 (9)와 같이 충분한 문맥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두 단어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가 파악된다는 점에서 (7나)보다 통합 정도가 약하다. (7가, 나), 특히 (7가)는 공시태의 산물로 짐작된다.

- (9) 가. 전라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222개 섬에 대해 개·작명을 요구했으나 나머지 104개 섬은 아직 새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나. 중고 pc의 판·구매도 이제 홈페이지로 하세요.
- 상습적인 판·구매거부 및 반복적인 반품에 대한 제재 강화
- 다. 경로식당 배·퇴식 봉사, 배·퇴식 동선의 확실한 분리
- 라. 게시판의 특성에 따라 익·실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 이런 배경에서 한국언론재단은 신문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의 다양성과 익·실명 여부, 취재 경로를 분석하였다.
- 마.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일부 민간지들의 창·폐간 속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 92년의 잡지 창·폐간 현황

(7다)는 두 단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은 (7가)와 동일하되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예이다. 발화시 휴지가 없고 표기시에도 쉼표, 가운뎃점 등이 표기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사전에서도 올림말로 처리하고 있어 과거 특정 공시태의 산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부류는 본고의 직·간접류에서 제외한다.<sup>7)</sup>

7) (7다)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단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7가, 나)는 발화시의 휴지로 보아 단순한 단어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직·간접류의 문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2자어의 인식

앞서 본고는 직·간접류의 생성이 공시적 생산성을 가지는 과정이라 보았는데, 직·간접류의 공시적 생성은 이를 구성하는 2자 한자어의 내부구조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미 존재하는 두 단어의 공통부분을 생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내부구조 분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구성의 생성이 2자어의 내부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화자에게 2자어의 구조가 완전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때의 내부구조는 2장에서 언급하였던 한문 문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직·간접류 구성의 요건이 의미적인 부분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직·간접류를 구성할 수 있는 단어는 일련의 의미성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대조적인 의미성분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관계, 즉 양립불능관계(incompatibility)에 있다. 양립불능의 어휘항목이 단 둘이면서 서로 의미가 반대되어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다수이나 (10나)처럼 대립관계이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라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세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 (10) 가. 반의관계

공·사익(공익↔사익), 내·외국(내국↔외국), 개·폐회(개회↔폐회)

#### 나. 대립관계

두 단어 대립: 영·유아(영아-유아), 초·재혼(초혼-재혼)

교·강사(교사-강사), 정·퇴학(정학-퇴학)

세 단어 대립: 초·중년, 중·장년, 초·중·장년(초년-중년-장년)

한문 문법에 따른 내부 구조면에서는 공통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간접류를 이루는 한자어의 한문 문법에서의 구성법은 매우 다양하며 생성된 결과물은 고유어 문법에서의 자격도 일치하지 않는다.

---

양상에 있기 때문에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잠시 보류하고, 직·간접류를 가리킬 때는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

한문 문법에서의 구성법	고유어 문법에서의 자격	예
병렬	일반명사	검 · 경찰
	서술명사	개 · 보수, 판 · 구매
	어근	-
수식	일반명사	공 · 사익, 근 · 현대, 내 · 외국, 익 · 실명, 영 · 유아
	서술명사	내 · 외조
	어근	직 · 간접, 온 · 냉장, 거 · 미시, 선 · 후발, 내 · 외장,
술목	일반명사	정 · 퇴학, 피 · 가해, 배 · 퇴식
	서술명사	가 · 감속, 개 · 작명, 개 · 폐회, 입 · 출국, 퇴 · 전역, 창 · 폐간
	어근	가 · 피학
술보	일반명사	유 · 무급
	서술명사	출 · 결석
	어근	-
주술	일반명사	-
	서술명사	-
	어근	국 · 민영, 주 · 객관

직 · 간접류의 구성에 의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유하는 부분의 한자가 같지 않더라도 두 단어의 의미가 양립불능관계이고 음이 같은 음절이 공통으로 있으면 구성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와 ‘구매’의 한자 표기는 販賣와 購買로, ‘매’에 해당하는 한자가 다르지만 ‘판 · 구매’로 묶일 수 있다. 드물지만 ‘수평’과 ‘수직’이 ‘수평 · 직’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sup>8)</sup> 두 단어의 한자 표기는 각각 水平, 垂直이어서 공통 음절 ‘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다르지만 직 · 간접류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대비되는 경우로 ‘유력’과 ‘무력’은 한자 표기만으로는 완전한 반의 구성이지만(有力-無力) 전체 단어의 의미가 반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유 · 무력’으로 묶기가 어렵다.<sup>9)</sup> 개별

8) 예: 수평 · 직 정렬, 수평 · 직 키스톤 보정

9) 의미 관계가 직 · 간접류 형성의 주요 요건이라면 왜 모든 양립불능관계의 한자어쌍이 직 · 간접류를 형성하지는 않는가? 사용의 문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형성은 필요, 빈도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직 · 간접류의 형성은 ‘직접’과 ‘간접’이 함께 쓰이는 상황의 빈도가 높다는 점, 이 때문에 두 개념을 묶어 표현해 줄 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직 · 간접류를 이루는 단어쌍 중 반의어쌍이 많다는 점이 공기 빈도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반의어쌍은 무작위로 추출한 단어쌍과 비교

한자에 대한 지식보다 전체 단어의 의미,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맺고 있는 관계가 개별 음절의 의미를 추측하게 하고 결국 이러한 구성의 형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직·간접류를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직접’과 ‘간접’ 모두를 나타내는 개념을 표현할 새로운 구성을 만든다는 목적을 세운다.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직접’의 의미와, ‘직접’의 반대되는 개념인 ‘간접’의 의미를 떠올린다. 개념이 유사하다면 형식도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두 단어에 공통되는 ‘접’을 의미의 공통성을 유발하는 요소로 파악한다. 공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과 ‘간’을 반의관계를 유발하는 요소로 파악해 분리해낸다. ‘직, 간’을 병렬한 ‘직·간접’이라는 구성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되는 사실은 한자 형태소 파악에서 ‘자형(字形)-의미’의 대응 관계보다 ‘자음(字音)-의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직·간접류 형성에서 공유하는 부분의 한자가 같지 않더라도 두 단어의 의미에 공통성이 있고 음이 같으면 구성 형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았다. 이는 2자어 내부의 형태소 인식이

할 때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광호(2009)에서 형용사, 동사, 명사 반의어쌍을 각각 10개씩 선정한 뒤 이들 30개 반의어쌍이 우연히 공기할 빈도와 실제로 공기한 빈도를 비교하였는데, 반의어쌍이 실제 공기한 빈도가 우연히 공기할 빈도보다 평균적으로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광호 2009: 295). 몇 개 단어쌍을 아래에 제시한다.

	word1-word2	w1빈도	w2빈도	expected co-occurrence	observed co-occurrence	ob/ex
형용사	가깝다-멀다	1371	1705	15.465	114	7.371
	길다-짧다	2702	1082	19.342	223	11.529
동사	사다-팔다	4903	2608	20.831	311	14.929
사	성공하다-실패하다	1092	688	1.223	24	19.608
명사	전체-부분	3655	3380	16.786	144	8.578
사	전쟁-평화	3838	2084	10.868	309	28.431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직·간접류를 구성하는 단어쌍은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어쌍이며, 공기 빈도가 직·간접류 형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립불능관계에 있는 모든 단어쌍의 공기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양립불능관계의 단어쌍 모두가 직·간접류를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양립불능관계에 있으면서 한 음절이 공통된 한자어쌍이라 하더라도 사용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직·간접류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한자나 한문 문법에 기반한 형태소 인식이 아님을 보여 준다. 국어화자에게 한자어 형태소의 파악이 한자 습득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증렬·진훤지(1999)의 논의가 참고된다. 이 논의는 표기된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음운론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피험자를 자체 테스트에 의해 한자에 익숙한 층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나누고, 목표 한자와 의미 범주를 제시한 뒤 두 층이 이것을 어느 정도 확률로 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옷감-綿은 의미 범주와 한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고 옷감-面, 옷감-結 등은 잘못 연결된 것이다. 綿과 음이 비슷한 한자인 옷감-面이 제시되었을 때와 綿과 모양이 비슷한 한자인 옷감-結이 제시되었을 때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한자 학습 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2)

	Category	Target word	Correct exemplar
Homophone Distracter	옷감	面	綿
Homophone Control	성직자	面	
Visually Similar Distracter	옷감	結	綿
Visually Similar Control	과일	結	

조증렬·진훤지(1999: 487)

실험 결과 한자 지식이 적은 층은 동음이의 한자와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경우 모두 비슷하게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자 지식이 있는 층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경우에만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겠지만, 국어 화자가 갖게 되는 한자 관련 지식에서 한자표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한자 지식이 덜한 층은 의미-한글표기만을 대응시킬 수 있고, 한자 지식이 더 있는 층은 의미-한글표기-한자표기를 대응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0)</sup>

10) ‘밤에 하는 조깅’의 의미로 ‘야깅(夜ging)’이라는 단어가 2000년대 초반 만들어져 적지

한자 형태소 파악에서 자형을 대응시키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자음(字音)-의미’ 관계가 화자에게 더 기본이 된다. 직·간접류의 형성에서 ‘자음(字音)-의미’ 관계가 중시되고 자형(字形)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 4. 2음절 한자어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식

3장에서는 직·간접류를 수단으로 하여 2음절 한자어의 구성요소 파악 방식을 살펴보았다. 직·간접류의 형성 과정에서 의미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2자어 내부의 형태소 인식이 단어 간의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한자 형태소 파악에서 자형(字形)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2자 한자어와 관련해 국어화자가 파악할 수 없는 것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한문 문법을 따르는 2자어의 내부 구조는 파악할 수 없고, 2자어의 내부 요소는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13) 가. 파악할 수 없는 것: 한문 문법을 따르는 2자어의 내부 구조

나. 파악할 수 있는 것: 단어 간의 관계에 기반해 분석되는 2자어의 내부 요소

이 구분은 노명희(2009)에서 설명한, 2자어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sup>11)</sup> 노명희(2009: 128-129)에서는 한문 지식이 뚜렷한 사람은 愛라는 한자를 술목 구성을 형성하는 규칙에 의해 國과 결합하여 ‘애국(愛國)’이란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하였다. 한문 문법에 따라 작시(作詩)를 할 수 있는 한문학자라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 형성법은 국어 문법의 일부가 아니고, 소수의 국어화자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장에서 언급한바 만들어 지는 단어의 수가 극히 적다. 대부분의 국어화자는 한자의 자형(字形)과 한문 문법

---

않은 용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한자 표기를 배제한 대응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야깅’은 ‘조깅(jogging)’의 ‘조’를 ‘朝’에 대응시켰을 때 가능한 조어이기 때문이다.

11) 2자어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은 노명희(2009)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2자어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노명희(2009: 128-129)의 논의의 중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지식에 능통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으로 조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과정을 거쳐 ‘애국’이라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애(愛)’라는 한자의 자형을 모르고, 이 한자와 관련된 한문 문법적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애국’을 ‘애족, 조국’과 비교하여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애’를 인식하고 ‘애족, 애민, 애향’ 등에 유추하여 ‘애X’와 같은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이다.(노명희 2009: 128). 직·간접류의 형성은 ‘직접’과 ‘간접’의 한문 문법상 구조를 참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과 관련된다.

2음절 한자어를 생성하는 방식 중 후자, 즉 직·간접류와 관련된 방식에서는 단어를 형성할 때 목표 단어와 어휘부에 저장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형태소의 파악과 새로운 단어의 형성이 저장된 단어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국어화자가 2음절 한자어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운용하는 방식이, 규칙기 반이론과 대비되는 유추론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비(1988), 델링·스кау젠(1989)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채현식(2003나), 송원용(2005) 등의 유추적 관점의 어휘부론, 단어형성론에서는 단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 항목간의 관계에 온전히 근거한 과정으로 본다.<sup>12)</sup> 예를 들어 ‘귀에 부착하는 장신구’라는 의미의 ‘귀찌’라는 단어를 새로 만든다고 할 때 화자가 우선적으로 하는 작업은  $[X]_N + [-찌]_{[+N, \text{Suf}]} \rightarrow [[X]_N [-찌]_{[+N]}}]_N$ ,  $[X]_N =$  신체부위명사’라는 규칙을 꺼내어 X 위치에 ‘귀’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 형성의 근거가 될 만한 기존 단어(예: 팔찌, 발찌 등)를 어휘부에서 찾는 작업이다.(채현식 2003가: 12). 도출형 ‘귀찌’는 근거 단어의 일부를 다른 어휘적 요소 ‘귀’로 대체함으로써 형성된다. 위의 ‘애X’와 같은 단어 형성이나 직·간접류의 형성은 규칙의 입력형이 되어야 할 2자어의 구성요소들이 명백히 화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요소들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유추적 관점의 단어 형성방식을 적용한다면 직접 인식이 어려운 요소를 무리하게 규칙의 입력형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2자어 관련 현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sup>13)</sup>

12)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성명+님(예: 홍길동 님)’ 등의 임시어와 통사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통사적 합성어는 제외된다.

13) 서론에서 언급한바 본 논문이 ‘이론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자어 연구에 기존 이론을 끌어 들였다는 의미이다. 유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자어 자료를 추가한 것이 되겠다. 유추론자가 단어의 저장과 생성, 이해의 방식에 있어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어 자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론이 고유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유추론의 입장에서는 다루는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 5. 결론

이상에서 직·간접류를 자료로 하여 국어 화자가 2자어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직·간접류의 형성은 한자어와 관련된 현상의 매우 일부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가 이에 주목한 이유는 이러한 자료가 국어화자의 한자어 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가 국어 형태론 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고찰 결과 화자가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들의 관계에 기반하여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파악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관련하여 유추론의 방식으로 2자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형성을 설명할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제시해 보았다. 이 논의의 접근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14)</sup>

## 참 고 논 제

- 국립국어원 편(2005), 『2005년 신어』  
 김일환(2009), 「단발어에 대하여」, 『국어학』 55, 239-284.  
 김창섭(1999), 「국어어휘자료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1999-1-5).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177-195.  
 노명희(2008가), 「한자어의 구성 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89-114.  
 노명희(2008나), 「한자어의 의미 범주와 한자 형태소의 배열 순서」, 『한국문화』 44, 217-237.  
 노명희(2009),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몇 문제」-고재설(2007)과 관련하여-, 『형태론』 11.1, 119-133.  
 딜윙·스카우젠(B. Derwing & Skousen)(1989), "Morphology in the mental lexicon: a new look at analogy," in G. Booji and J. van Marle(eds.), *Yearbook of morphology* 2 (Dordrecht: Foris), 55-71.  
 리치(G. N. Leech)(1974), *Semantics*, London: Penguin Books.

---

는 점, 한자어 연구의 입장에서는 기존 이론을 끌어 들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4장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14)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신·구세대’와 같은 자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대’의 자립성 때문에 본고의 직·간접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구조적 양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바이비(J. L. Bybee)(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M. Hammond and M. Noonan(eds.), *Theoretical morphology: approaches in modern linguistics*, San Diego: Academic Press, 119-141.
- 서형국(2005), 『국어 접속 구성의 문법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형국(2008), 「복합 구성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대응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5-44.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3, 135-149.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25-39.
- 안소진(2009), 「국어 한자어에 쓰이는 단음절 형태의 특징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의 지역성과 세계성』, 2009년도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1-53.
- 이광호(2006), 「연결망과 단어형성」, 『국어학』 46, 125-146.
- 이광호(2009),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6, 281-318.
- 조중렬 · 진훤지(Cho, Jeung-Ryeul & Chen, Hsuan-Chih)(1999),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Activation in the Semantic Processing of Korean Hanja and Hangul",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4(5/6), 481-502.
- 채현식(2003가), 「대치(代置)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1, 1-21.
- 채현식(2003나),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한영희(1985), 「고고학 용어의 말바꾸기 작업」, 『배달말』 10, 3-18.

**An, Sojin. 2010. A study on how Korean speakers comprehend compositions of disyllabic Sino-Korean words. *Morphology* 12.2, 201-216.**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speakers can identify the elements in disyllabic Sino-Korean words. Relevant data on Sino-Korean words are examined to explore this issue. The study found that Korean speakers perceive structural components of Sino-Korean words as well as their semantic structures, based on the lexical relations that a particular word bears with other words in the lexicon instead of on the individual Chinese characters. This conclusion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Sino-Korean words can be objects of theoretical morphological studies, whose focus has been mainly on native Korean words.

Key words: disyllabic Sino-Korean word, elements of Sino-Korean word, semantic relationship, perception, lexicon

안소진(安昭珍)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56-093 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대림아파트 1동 1005호

전화: 010-3099-2084

E-mail: afterain11@gmail.com

(2010. 07. 01. 원고 받고, 2010. 07. 24. 심기로 함)